

출장보고서

I. 출장 개요

1. 출장건명: 임산물 분야 FTA 협상 영향 분석(MERCOSUR, 페루)
2. 출장목적: 브라질 임산업 현황 및 수출경쟁력 조사
3. 출장지역: 브라질 상파울루
4. 출장기간: 2009. 7. 13.~7.20(4박 8일)
5. 출 장 자

부서명(기관명)	직 급	성 명
글로벌협력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	어명근

6. 출장일정

일 정	주요 활동내역	비 고
7. 13.-14.	출국(인천-LA-상파울루)	항공
7.14.(오후)	상파울루 중앙시장(비목재임산물 소매)	상파울루 시내
7. 15.	브라질목재판넬협회(ABIPA)	상파울루 시내
	한국무역협회 상파울루 대표부	상파울루 시내
7. 16.	제조림 현장(상페드로 지역)	자동차
7. 17.	한국무역투자공사(KOTRA) 상파울루KBC	상파울루 시내
	상파울루 한상협의회	상파울루 시내
7. 18 - 20	귀국(상파울루-LA-인천)	항공

7. 주요 방문기관 및 면담자

소속기관	직 급	성 명	연 락 처
ABIPA	경영본부장	Ms. Rosare D. Donati	-전화: (11) 5584-0884 -Email: abipa@abipa.org.br
TAFISA	수출이사	Mr. Alfredo Berros	- (41) 3317-5606 - aberros@tafisa.com.br
eucatex	국제컨설턴트	Mr. Paulo Amanthea	- (11) 4028-9090 - amanthea@eucatex.com.br
Duratex	수출부장	Maurilio Filho	- (11) 3179-7834 - maurilio.stocco@duratex
Satifel	수출이사	Emerson Gomieiro	- (11) 3646-4681 - emerson.gomieiro@satifel
BERNECK	대외무역부장	Jose A. Malagutti	- (41) 2109-3889 - aluizio@berneck.com.br
한국무역협회	상 파울루대표 부 소장	심준석	- (11) 3175-3030 - dasarang@kita.net
Kotra	상 파울루KBC 과장	이성희	- (11) 7153-3900 - silvia_lee@kotra.or.kr
상 파울루한상 협의회	부회장	Angelo Kwak	- (11) 8182-9332 - bspacio@ yahoo.co.kr

II. 주요 출장 결과

1. 브라질목재판넬협회(ABIPA)

○ 개요

- ABIPA는 1967년 설립된 브라질파티클보드산업협회(ABIMA)를 모태로 1994년 출범하였으며 상파울로 지역에 위치한 브라질 최대의 목재류 판넬 생산업체들로 조직됨. 설립목적은 판넬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부와 유관기관은 물론 소비자 단체들과도 정례적인 모임을 유지하고 있음. 회원사는 Berneck, Duratex, Eucatex, Fibraplac, Masisa, Satifel, Tafisa 등 7개 회사이며 직접 및 간접 고용인원 약 3만명이 가구, 건설, 포장, 자동차 및 목재제품 산업에 필요한 제품을 생산
- 목재판넬 생산업체들은 하드보드, MDP(중밀도PB), MDF(중밀도섬유판), OSB(Oriented Strand Board) 등 다양한 제품을 가구산업에 제공. 판넬업계의 기본적인 목적 가운데 하나는 지속적인 기술의 현대화임. 최근 새로운 생산라인을 설치하고 인쇄, 종이투입(paper impregnation), 박막화(lamination)와 채색(painting) 등 신공정을 개발하여 국내외 시장에서 면모를 채신하고 있음.

○ 임무(Mission)

- 국내 및 국제적으로 회원사들을 대표하는 공적, 사적 법인체로서 회원사들의 발전을 독려하기 위해 국내 및 국제적인 유관기관간 정보 교환은 물론, 연구 수행과 심포지움을 개최함. 또한 목재판넬의 표준화와 등급화의 기준(norm) 마련을 지원하며 시장 조사를 통해 회원사들이 시장동향을 숙지하도록 고취. 그리고 소비자들의 시장 분화(market segments) 진전을 뒷받침하여 연관산업 전반의 성장과 경쟁력 제고를 모색함. 주요 활동은 업계의 조세부담 경감 노력, 해외시장 진출 노력, 외국과의 양자간 협상 참여를 통한 신시장 개척, 가구수출촉진 정책제안,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용, 임업정책 수립 지원 등임.

○ ABIPA 회원사 현황(2007년 기준)

- 총매출액: 45억 1,000만 헤알
- 총수출액: 1억 9,100만 헤알
- 조세부담액: 11억 8,300만 헤알
- 1997-2005년 기간 투자액: 13억 달러(미화)
- 2007-2010년 기간 투자액: 10억 달러(미화)
- 연간 생산용량: 2007년 600만^{m³}, 2010년 1,000만^{m³} 예상
- 회원사 재조림 면적: 50만 ha(소나무, 유칼립투스)
- 회원사 영구보호림: 26만 ha

○ 브라질의 보드류 제품과 수급 현황

1) MDP(중밀도PB)

- 정의: MDP는 목재분말을 합성수지와 섞어 고열과 압력을 가한 층으로 된 판넬임. MDP는 지속압력기술(continuous press technology)를 집약적으로 이용한 결과로서 기존 파티클보드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세대의 중밀도 목재분말판임.
- 수급 현황: 2007년 현재 생산용량은 연간 3백만^{m³} 수준임. 2006년 브라질의 인구 천명당 소비량은 2001년과 마찬가지로 12^{m³}(전국 소비량 약 220만^{m³})로 미국의 25^{m³}, 영국 51^{m³}, 스페인 81^{m³}, 독일 83^{m³}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임.
- 기초원자재: 우리나라 보드업계가 대체로 합판제조시 발생하는 폐잔재를 원자재로 사용하는데 비해 브라질의 목재판넬류는 소나무(Elliot pine)와 유칼립투스(Eucalypt)을 재조림하여 생산한 원목을 사용함. 품질 문제로 인해 임업폐잔재(forest products waste)를 사용하지 않고 원목에서 추출한 섬유질로 청결한 보드를 생산하여 높은 가격을 받고 있음. 간벌로 생산된 소경재도 원료로 투입함. 간벌은 완전 자동화되어 있으며 산악 등 경사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케이블을 이용하여 벌목함.
- 특질: MDP는 넓이, 길이, 두께의 입체적 안정성(dimensional stability)이 높은 동질 패널(homogeneous panel)로서 구부러지지 않으며 나사못 박

기에 좋은 성질을 가지고 있음. 따라서 주거용이나 사무용 가구로 특히 적합함. MDP가 가장 많이 쓰이는 제품은 문짝, 가구 옆면, 선반, 칸막이, 사각책상 윗면, 서랍의 전면과 측면 및 윗면과 바닥면 등임.

- 마감방식: 마감방식에 따라 천연(커버링 없음), 저압박막(low pressure laminated), 호일처리박막(finish foil lamination)의 세가지임.

2) MDF(중밀도섬유판)

- 정의: MDF는 목재의 섬유질을 합성수지와 접착시켜 고온의 압력으로 만든 중밀도 판넬임.
- 수급 현황: 2007년 현재 생산용량은 연간 2백만^{m³} 수준임. 2006년 브라질의 인구 천명당 소비량은 10^{m³}(전국 소비량 약 190만^{m³})로 미국의 15^{m³}, 영국 21^{m³}, 스페인 21^{m³}, 독일 39^{m³}에 비해 낮지만 소비량이 증가하는 추세임.
- 기초원자재: MDP와 같이 조림 소나무와 유칼립투스종 원목을 원자재로 사용하며 목재에서 추출한 섬유질로 보드를 생산하므로 보드 품질이 좋고 가격도 높음.
- 특질: MDF의 가장 뚜렷한 특질은 입체적 안정성(dimensional stability)이 아주 높고 가장자리를 표면으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작업에 용이함. 밀도가 적정하고 섬유질이 완전균일하여 색칠과 표면처리, 성형 및 조각과 천공에 좋음. 또한 천연목재와 같은 나무결 무늬와 모양이 없어 목재류와 다른 방식으로 가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용도: 가구산업에서 문짝 표면, 서랍 전면 및 보다 정교한 부분, 그리고 전자제품 받침이나 책장 등에 쓰임. 건설업계에서는 발받침, 굽도리널(skirting board), 장식문, 무늬등책상다리, 포장재 등에 쓰임.

3) 수급 현황

- PB와 MDF에 대한 브라질 국내 수요는 늘어나는 추세이며 그에 따라 설비투자가 증가하면서 생산용량도 현재 600만^{m³}에서 향후 1000만^{m³}로 확대되고 있음. 2004년 이후 PB 대신 MDP가 생산되기 시작하였음.
- MDP 수출은 생산량 증가로 증가세를 보이다가 국내 소비 증가와 환율

변동의 영향으로 2006년 이후 감소 추세로 전환되었음. MDP 수입은 2005년 이전까지는 국내 생산설비 부족으로 인해 수출량보다 많았으나 2006년 이후 수출량이 수입량을 초과하여 순수출국으로 전환되었음.

- MDF 수출량은 국내 생산 급증에 따라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수입량보다 많았으나 2006년 이후 소비량이 늘어나면서 수입량이 더 많은 순수입국으로 전환되었음. 그러나 향후 설비투자가 증가하여 조만간 수출입 균형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하드보드 소비는 정체 내지 감소하고 있으나 생산능력이 높아 수출은 증가 여력이 충분함.

<표 1> MDP

단위: 천m³

연도	생산	수입	수출	국내소비
2000	1,762.2	15.4	15.7	1,761.9
2001	1,833.0	46.3	7.8	1,871.5
2002	1,779.4	42.8	17.5	1,804.8
2003	1,859.1	62.1	12.9	1,908.4
2004	2,083.5	94.2	19.8	2,157.9
2005	2,049.0	74.7	25.7	2,097.9
2006	2,198.2	58.2	76.7	2,179.7
2007	2,557.1	25.4	37.4	2,545.1

자료: ABIPA

<표 2> MDF

단위: 천m³

연도	생산	수입	수출	국내소비
2000	381.4	10.6	3.0	388.9
2001	609.1	23.9	3.9	629.1
2002	835.1	25.6	155.0	705.6
2003	1,095.5	140.7	217.7	1,018.6
2004	1,406.0	171.0	204.5	1,372.5
2005	1,407.7	146.4	159.8	1,394.4
2006	1,695.4	204.6	73.3	1,826.7
2007	1,879.1	195.7	42.2	2,032.5

자료: ABIPA

<표 3> Hardboard

단위: 천m³

연도	생산	수입	수출	국내소비
2000	558.8	-	194.9	363.8
2001	534.5	-	181.2	353.3
2002	481.3	-	211.8	269.5
2003	511.1	-	225.3	285.8
2004	508.3	-	204.5	303.8
2005	505.1	-	231.8	273.3
2006	532.9	-	228.9	304.0
2007	526.9	-	212.7	314.2

자료: ABIPA

○ ABIPA 운영; 공동관리(Shared Management)

: ABIPA는 업무 능률 향상과 경험 공유를 위하여 회원사 임직원을 판매이사와 홍보이사로 영입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위원회로 구성됨.

- 대외무역위원회

: 무역 촉진과 투자 및 경제관계 강화 위해 외국과의 국제 협상에 참여. 특히 북미와 중남미 시장이 중요하며 유럽과 아프리카, 아시아, 중동과 대양주는 성장시장임. 이 위원회는 ABIPA를 대표하여 국제 협상에서 정부를 감독하는 대표기구를 구성함.

- 수입관세감면위원회

: ABIPA의 가장 어려운 업무는 수입설비와 원자재에 대한 관세 감면임. 수입관세감면위원회는 브라질 판넬산업의 현대화와 관련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국내 대체재가 없는 수입자본재에 대한 관세 감면을 추진.

- 산림위원회

: 산림위원회는 회원사들이 지속가능한 산림 발전을 위한 활동 이행을 준수하는 것은 물론 사회적 책임과 환경보전 정책을 강화하고 있음. 이와 같은 위상으로 인해 ABIPA는 국가산림정책조정위원회(Conaflor)의 이사기관으로 참여하고 있음.

- 물류위원회

: 브라질에서 운소오가 수출 분야의 전문가들은 도로, 해운, 철로운송 등 물류체계의 모든 병목현상에 직면하게 됨. 컨테이너와 선박이 부족하고 도로와 철로운송이 미흡하며 운임이 높은 여건에서도 수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 유통위원회

: 유통위원회의 핵심 임무는 ABIPA의 이미지를 강화하는 것이며 이는 유기적인 소통에 의해 달성 가능함. 신속한 행동과 잘 마련된 메시지는 세분된 시장과 새로운 제품에 관한 정보 전달과 광고를 위해 특별한 효과를 보임.

- 기술표준위원회

: 국가 산업용어 표준화 및 시험과정과는 별도로 기술표준위원회는 소요 분야와 품질 기준을 고려하면서 제품의 특징에 따른 실질적 가치의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2. 상파울루 중앙시장

○ 비목재임산물 현황

: 브라질에서 소비되는 비목재 임산물은 대부분 견과류이며 그 밖에 맛과 색깔이 죽순과 비슷한 야자수 새순 팔미또(Palmito) 등이 있음.

- 상파울루 최대의 소매시장인 중앙시장에서 거래되는 비목재 임산물 가운데 대표적인 너트류는 마카데미아와 맛이 유사한 카스탄야(castanha do para)가 있으며 아메리카 원산 옷나무 일종인 캐슈(Cashew)의 열매 캐슈애플(Cashew apple) 꼭지인 캐슈넛(Cashew nut)는 카쥬(Caju), 호두는 노제스(Nozes)라는 이름으로 판매되고 있음. 마카데미아와 아몬드 등 외국에서 수입된 너트류도 함께 판매되고 있음.

- 계절상 겨울인 2009년 7월 14일 현재 브라질 견과류 가격은 kg당 26헤알

(약 17,000원), 캐슈넛은 30헤알(21,400원), 호두는 34~42헤알(23,000~27,000원) 정도로 브라질의 국민 소득수준을 고려하면 낮은 수준임. 브라질의 국내 농산물 유통구조의 효율성이 낮은 탓임. 우리나라와의 FTA 체결시 유통과정 합리화가 이루어질 경우 오히려 브라질 국내 소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될 가능성도 있음.



- 외국에 수출되어 고급요리의 원료로 소비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브라질 국내 소비자들에게도 인기가 높은 팔미또(Palmito)는 야자수 새순을 뽑아낸 것으로 죽순과 맛이 비슷할 뿐만 아니라 색깔과 질감도 유사함. 그러나 팔미또를 수확한 야자수는 고사되기 때문에 팔미또 수확용 야자수는 야생이 아닌 재배를 통해 수확하고 있음. 소금물에 절여 통조림 형태로 유통되는 팔미또 가격은 5kg 한통에 15헤알(약 1만원) 수준임.



○ 향후 전망

- 브라질산 비목재 임산물 가운데 견과류는 국내 생산량이 풍부하고 품질도 좋은 편이나 낙후된 유통구조 탓에 국내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게 유지되고 있음. 하지만 한국과의 FTA 체결로 관세가 철폐될 경우 효율적인 수출물류를 통해 수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편임.
- 팔미또를 비롯한 다른 비목재 임산물도 품질과 가격경쟁력이 높아 FTA 체결 이후 우리나라로 수출될 여력이 충분할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국내 임산물과의 대체성이 낮아 임산업에 미치는 피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3. 재조림 현장

- 상파울루 인근에 재조림 현장이 산재하고 있음. 판넬업체들은 토지를 구매하거나 토지소유자와 장기 임대 방식에 의해 소나무와 유칼립투스를 재조림하고 있음.
- 토지 임대가 지속될 경우 목재 수확(벌채) 후 즉시 유목을 재조림하지만 최근 바이오 에탄올 생산 증가로 목재 대신 사탕수수과 경합되는 지역이 늘어나고 있음.
- 또한 환경보존 관련 규제로 인해 재조림 가능 지역이 점차 도로와 철로 등 사회간접자본이 열악한 오지로 분산되는 경향이 있어 재조림 비용이 높아지고 있음.





- 목재 수종의 선택은 판넬 등 생산물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기본적인 요건임. 토질과 용도를 고려하여 소나무나 유칼립투스를 식재함. 그러나 소비자들은 판넬에 사용된 원목의 수종에는 관심이 없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비용 절감과 품질을 고려하여 수종을 선택하고 있음. 전반적으로는 생장기간이 짧은 유칼립투스 재조림이 증가하는 반면 소나무 재조림 면적은 감소 추세임.
- 재조림을 통해 원목으로 성장하는 기간은 소나무 약 18년, 유칼립투스 6~7년 정도임. 2007년 현재 ABIPA 회원사들의 재조림 면적은 약 50만 ha 정도임.



4. 해외조립 투자 가능성

- ABIPA 관계자들에 따르면 브라질 정부 차원의 외국인 투자를 금지 또는 제한하는 규제는 없으며 원목 수출 규제 역시 일부 특수 수종에만 적용되고 있으며 대부분 수종의 수출은 허용되고 있음. 다만 원목 형태로 수출할 경우 일부 또는 완전가공 후 수출하는 경우에 비해 운송비 등 비용이 더 많이 소요되어 원목 대신 제재목이나 단판, 또는 판넬 등 가공품 수출이 대부분임.
- 한국무역협회 상파울루 대표부(심준석 소장), 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상파울루 KBC(이성희과장), 상파울루 한인회(Angelo Kwak 부회장) 등과의 면담 결과 한국 교포들은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자본으로 영업이 가능하고 품질과 가격경쟁력에서 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의류 제조 및 판매업에 대부분 종사하고 있음. 따라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상대적으로 많은 자본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초기 투자자본 회수기간이 긴 목재 관련산업이나 조립업 등에 큰 관심이 없는 상태임.

5. 평가 및 주요 시사점

- 브라질은 세계 최대의 열대림 보유국일 뿐만 아니라 활엽수인 유칼립투스
는 물론 침엽수인 엘리엇 파인 등 목재 성장에 적합한 기후와 토양
등으로 인해 원목과 목재 판넬류의 가격경쟁력과 품질경쟁력을 모두 확
보하고 있음. 특히 판넬류의 경우 잘 조직된 협회(ABIPA)를 중심으로
중밀도파티클보드(MDP) 등 신제품 개발과 해외 수출 및 무역협상 지원,
각종 원자재에 대한 수입관세 감면, 지속가능한 산림 발전과 환경보전
정책수립, 도로, 해운, 철로 등 물류 개선과 표준화 기준 마련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현재 우리나라는 제재목과 단판 등 브라질산 판넬류를 일부 수입하고
있음. 뉴질랜드 등 경쟁국에 비해 가격과 품질은 비슷하지만 특정 용도
와 규격 등에 따라 브라질산 판넬류를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따
라서 FTA 체결시 관세 인하로 가격이 낮아지면 수입이 증가할 가능성
이 높음. 다만 브라질 측은 우리나라의 비관세장벽(NTB)에 관심이 많아
접착제 등에 대한 규제 기준을 국제화하고 판넬류 규격과 명칭 등을 정
비하여 향후 발생 가능성이 있는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
할 필요가 있음.
- 비목재 임산물류는 생산물 종류의 다양성과 가격 및 품질경쟁력 측면에
서 중국만큼 위협적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일부 견과
류의 경우 FTA 체결로 관세 인하시 수입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브라
질산 마카데미아와 캐슈넛 등 견과류의 품질은 다른 국가산에 비해 낮
지 않으며 상대적으로 높은 편인 국내 소매가격도 향후 유통과정 합리
화를 통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임. 그 밖에 우리나라 소비자들
에게 생소한 팔미또(Palmito) 등 임산물은 새로운 소비처 창출과 함께
수입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며 죽순 등 대체재 소비 위축에 대비할 필
요가 있음.

- 현재 브라질 정부 차원의 조림투자 규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원목 수출규제도 특수수종 외에는 시행되고 있지 않음. 그러나 우리나라 임업계가 브라질에 직접투자하여 조림, 벌목, 수출 후 가공하는 방식의 해외 임업개발은 소요비용 뿐만 아니라 인허가 등 브라질이 환경관련 법규와 제도상 애로 및 투자자본의 회수기간 등 여러 가지 난관을 극복해야 하는 문제를 안고 있음. 따라서 FTA 체결을 위한 정부간 공식협상을 통해 이들 문제를 쟁점화함으로써 단순하고 투명하며 예측가능한 해외조림 투자제도를 정립할 필요가 있음.